

정례브리핑

2020.4.13(월) 10:30, 여상기 대변인(통일부)

안녕하십니까? 4월 13일 월요일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장관관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관은 내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국무회의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다음, 차관은 4월 16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차관회의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통일방송에서 '통일 왓수다'라는 방송을 야심차게 준비해 온 부분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일방송 UniTV에서는 신규 프로그램으로 '통일 왓수다'를 준비해서 4월 13일에 첫 방송이 시작됩니다. '통일 왓수다'는 기존의 통일방송에 볼 수 없었던 개그맨의 프로그램 진행, 주제 등 파격적인 토크쇼 형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제1화는 최근 엄청나게 인기를 끌고 있는 트로트를 소재로 북한에도 트로트가 있는지, 있다면 어떤 노래인지 등에 대한 궁금증을 시원하게 풀어줄 예정입니다.

'통일 왓수다'는 북한의 트로트 또는 화장품 등 매주 시청자들이 궁금하게 생각할 수 있는 소재들을 참신하고 재미있는 방식으로, 그러나 가볍고 유쾌하게 풀어나갈 예정입니다.

4월 13일에 시작되는 '통일 왓수다'는 통일부 유튜브 등 온라인을 통해 공개하는 것은 물론, KTV에 매주 월요일 8시 30분 그리고 아리랑TV에 매주 토요일 아침 7시, 저녁 6시 30분에 방영될 예정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질문 있으시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북한 매체를 통해서 최고인민회의 결과가 오늘 나왔는데, 코로나19 국면 속에서 보건 부분 예산을 증액하고 리선권 등을 국무위원에 임명하는 등의 결정이 눈여겨볼 만한 평가입니다. 전반적으로 통일부는 이번 최고인민회의를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 > 네, 말씀하신 것처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3차 회의가 4월 12일 개최되어 법령 채택, 예·결산, 조직 문제 등 정례적인 의안들이 처리 결정되었습니다. 인사 부분에서는 작년 12월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와 올해 4월 정치국 회의의 인사... 정치국 회의 인사 후속조치 차원에서 군부위원회 위원, 내각 등 주요 국가기구의 인사가 있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오늘 오후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이번 최고인민회의가 예정보다 이틀 늦게 개최됐는데요. 이 배경에 대해서 어떻게 통일부는 분석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네, 최고인민회의가 연기 개최된 것에 대해서 북한 측이 구체적인 사유를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내부의 정치 일정 등을 감안하여 조정된 것으로 추정해 봅니다.

<질문> 관련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불참했는데요. 물론, 매번 참석한 것은 아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답변> 네,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 최고인민회의에 김정은 위원장이 참석한 사례를 보면 매번 참석한 것이 아니라는 점하고, 또 2019년부터 김정은 위원장이 대의원직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 등을 참고해서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 정치국 회의도 열렸었는데 그 자리에서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당정치국 후보위원으로 복귀했는데, 일각에서는 2인자 구축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 통일부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예, 김여정 제1부부장이 후보위원으로 복귀된 것은, 복귀된 보도를 보았고요. 이 복귀된 의미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긴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질문> 이번 예산 관련해서요. 또 이번에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한 절 반가량을 경제 건설 쪽에 투입했는데, 예산편성 전반적으로 분석하신 것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 > 네,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논의된 세 가지 의안에 대해서 보다 상세한 것은 오후 보도 참고자료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통일부 차원의 최고인민회의 분석 과정에서 혹시 김여정이 식별됐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질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질문> 통일부 차원의 최고인민회의 분석 과정에서 김여정이 식별됐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분석 과정에서 식별되었는지 여부는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진자료에 나타나 있는지 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정치국 회의에서 보면 보도가 나왔잖아요. 북한이 경제적인 어떤 사정이라든가 어떤 경제사업 등 이런 것들의 차질을 최초로 인정한 듯한 그런 어떤 발언들을 했는데, 그런 과정에서 지금 북한이 상당히 경제가 어렵다, 이런 어떤 것들은 읽혀집니다, 많이. 우리 정부나 국제사회에서 대북 인도적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앞으로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 아니면 현재 계획을 갖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네, 북한도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타 많은 나라들과 같이 어려움이 직면해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고요. 이와 관련해서 북한과 인도적 협력, 또 보건협력 등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정부는 필요하다는 입장이고요.

특히, 이번 코로나19 사태와 같이 비전통적 안보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초국경적 협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고요. 정부는 이러한 초국경적 협력에 대해서는 정부의 기본입장은 개방, 연대, 협력입니다. 이러한 원칙에 기반하여 정부는 국제사회와도 협력하고 있으며, 향후 남북방역을 추진할 경우에도 이러한 입장에서 판단해 나갈 것입니다.

<질문>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이 참석을 하지 않았는데, 일부 전문가들은 정치국 회의에서 주로 의사결정을 하고 이미 결정된 사안을 최고인민회의에서는 공개하는 어떤 과정이다, 비중이 그만큼 축소됐다고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통일부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

<답변> 네, 일부 전문가들의 판단에 대해서 통일부가 다시 판단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참고적으로 일반적으로 북한은 당 우위국가이기 때문에 당에서 먼저 정책적 결정을 하고 이를 최고인민회의에서 추진하는 형태로 진행돼 왔기 때문에, 그와 같은 분석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드시 동의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질문> 4월 15일이 김일성 생일 태양절로 북한에서는 알려져 있는데, 이것 관련해서 북한에서 다른 움직임이나 뭐 통일부에서 분석하고 있는 내용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방금 말씀하신 행사와 관련해서는 보도사항에 언론... 치적을 보도하는 등의 내용은 있지만, 구체적으로 행사를 준비하거나 이런 준비동향에 대해서는 아직 보도가 없습니다.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